


이 력 서

(희망연봉 : 회사내규에 따름)

(지원부문 : 웹퍼블리셔)

성 명	한 글	노주현	한 자	盧 珠 鉉	
생년월일	1997년 02월 22일		연 령	만 23 세	
E-mail	xxxooo22@naver.com				
휴 대 폰	010-7508-3438		자택번호	02-774-3438	
주 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02, A동 105호 (후암동)				
핵심역량	웹디자인, 웹퍼블리싱, 중국어				

1. 학력사항

년 / 월	학 교 명	학 과	졸업 구분
2018년 03월 ~ 2020년 02월	명지전문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졸업
2012년 03월 ~ 2015년 02월	선일 e비즈니스고등학교	콘텐츠학과	졸업

2. 교육사항

년 / 월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비 고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UIUX 웹퍼블리셔 정규과정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수료

3. 포트폴리오

구 분	URL/내용
포트폴리오 관리형 웹페이지	http://rohjuhyun.dothome.co.kr/moon2

4.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회 사 명	직 무	비 고
2018년 08월 ~ 2019년 12월	한성토탈문화	웹디자인보조	퇴직
2016년 09월 ~ 2018년 06월	동명전기(주)	영업관리	퇴직

5.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

취 득 일	자 격 증 명	발 행 기 관
2019년 04월 14일	HSK 4급	중국국가한반
2016년 07월 29일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서울지방경찰청
2014년 02월 10일	정보기술자격(ITQ)-엑셀 A 급	한국생산성본부(KPC)
2013년 09월 13일	GTQ(그래픽기술자격) 1급	한국생산성본부(KPC)
2013년 01월 14일	정보기술자격(ITQ)-파워포인트A급	한국생산성본부(KPC)
2012년 11월 12일	정보기술자격(ITQ)-아래한글A급	한국생산성본부(KPC)

6.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기 간	국가명	기관 및 수행업무
2019년 01월 (2주)	중국 베이징	어학연수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p>“숨길 수 없는 집안내력”</p> <p>언니와 오빠가 모두 IT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권유를 받았지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되어서 전문성을 가진 진로를 고민하다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익히 들어온 말로는 코더는 야근이 숙명이며 장기가 꼬일 것만 같은 직업이지만 해결을 하면 굉장한 성취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뛰어든 직무군이 아니라 수많은 각오와 결심으로 퍼블리셔에 뛰어들었습니다.</p> <p>수강을 하다 보니 컴퓨터언어를 통해 상상하고 기획한 것을 구현해서 즉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론트엔드 영역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배너작업이나 블로그 관리 등을 맡아 일해본 경험이 있어 디자인 툴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00개가 넘는 홈페이지를 보며 분석했고, 다양한 기능을 넣은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p>
학 교 생 활 및 교 육 활 동	<p>“남다른 각오와 적성”</p> <p>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여기저기 치이며 사회생활을 터득해 나간 지 3년쯤 되던 무렵, 열정을 쏟아 무언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바로 중국비즈니스학과 야간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중국어를 처음 접했던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했고 그 결과 성적장학금을 받고 반에서 두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정하면 그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는 성격입니다. 확실한 결과물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p> <p>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바람에 학원은 휴강되었고 반이상의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채 되지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퍼블리셔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이 저 포함 3명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각오가 남다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적성에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퍼블리셔의 길은 저에게 있어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각오까지 겸비되어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사 회 생 활	<p>“돌파구는 존재한다”</p> <p>첫 직장엔 입사해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부담이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 자신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의 시간이 흘렀고, 어디를 가든 사무적인 전화 업무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주변 분들의 전화 패턴을 메모하고 음식 주문 전화로 예약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어 듣기 좋아졌다', '발전된</p>

	<p>모습이 보기 좋다' 등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입사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돌파구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 낼 자신이 있습니다.</p>
관 련 경 험	<p>“퍼블리싱에 최적화된 경험”</p> <p>웹디자인 보조로 근무했을 당시, 원래는 일반 사무보조로 채용이 된 것이었는데 툴을 다룰 줄 안다는 이유로 웹디자인 보조와 사무보조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발휘했던 빠른 일처리와 살가운 성격으로 6개월만 근무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현재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뽑혔지만 일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시며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달력 교정을 보며 빠짐없이 틀린 부분을 잡아냈던 빛나는 눈으로 코딩의 오류를 찾아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 역량을 가지고 더욱 퍼블리셔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한발자국 나가게 되었습니다.</p>
성 격 장 점 및 단 점	<p>“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p> <p>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처한 상황을 탓하고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사람이기보단,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내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서 이 장점은 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달 정도의 휴강을 가졌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고 복습, 선행학습, 개인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면서 배움의 끈이 끊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 수강생들 보다 배는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현시킬 수 있었습니다.</p>
입 사 후 포 부	<p>“두가지 약속”</p> <p>입사 후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사내의 반딧불이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저로 하여금 공동체의 분위기를 환히 밝히자는 신념으로 어느 소속에 있든 그 안의 환한 반딧불이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p> <p>둘.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막내의 역량과 그에 못지않은 센스, 일처리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한발 앞서 제 일처럼 하는 정성을 보이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 년 12 월 일

성 명 : 노 주 현 (인)